

표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

2003

3월

만남

특집 : 기도 할 일



대한예수교 **영락교회**
총회장 이로희 목사
가사 오정현 목사 이숙희
영락교회고등부

만남의 초점



졸업시즌 맞은 영락학원

졸업의 계절이다. 대광학원, 영락여자신학원, 영락유치원 졸업식에 이어 2월 13일 영락학원 대강당에서 있었던 영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조정휘 교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사장 이철신 목사(오른쪽)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달의 말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순절을 - 이철신 2

특집/ 기도할 일

사순절의 유래와 의미 -이승준 4

2003. 1. 19. 오후에 일어난 이야기 -장진호 6

3월 목회력 9

3. 1운동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윤경로 10

오늘의 교회 공동체 -나학진 12

창립 9주년 맞은 은퇴제직 상조회 -인미 15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노철규 16

영락의 젊은이들/

친구같은 하나님, 친구같은 예수님 -이주철 18

눈부신 하늘아래서 -김의혁 20

문화사역자의 인성개발과 은사 -김혜영 22

영락선교제자훈련학교를 소개합니다 -최수연 25

목회자칼럼/ 인생역전? 심심하지나 않으면! -한규영 28

사마리아로/ 복음으로 리더 양성을 돕는 '등대회' -인미 30

장묘문화 이야기(2) / 은총 입은 사람들 -신기도 32

마음의 양식/

이만용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통독사경회' -오철훈 34

열기로 가득 찼던 성경통독사경회 36

전도자 노트/ 추억 속 삶 보다 더 좋은 현실의 삶 37

항존직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관리실무위원회 40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 공혜숙 41

교회소식 44

예배시간 안내 및 교회약도 48

〈알림〉 연재중인 '기독교문화이야기' 와 '만화' 는 다음 호에 실습니다.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1.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2.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3.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4.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

✦ 4대목표

1. 교육
2. 성도의 교제
3. 선교
4. 봉사

- 2003년 3월호 통권 350호
- 발 행 / 2003. 2. 20
- 발행인겸 편집인 / 이철신
- 주 간 / 이명호
- 발행처 /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00-032
서울 중구 저동2가 69
e-mail / hongbo@youngnak.net
전화 / 2273~6301(대)
팩스 / 2267~9388
http://www.youngnak.net
- 인 쇄 / 성원인쇄사(2277~7601)



■ 표지설명:고등부 겨울 수련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순절을

루게릭 병이라는 불치 병에 걸린 에드 답슨(Ed Dobson)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갈보리 교회라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입니다. 루게릭 병은 근육과 신경이 무기력해지는 병입니다. 차츰 몸이 마비되다가 나중에는 온 몸이 마비된 채 의식만 남아 있다가 죽는 병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남은 생애가 2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철신 담임목사

루게릭 병으로 인한 변화

이 목사님이 병에 걸린 후에 주요한 변화는 기도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길게 이어지는 간구의 목록 대신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교회 전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식사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

든 교인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답슨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다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들 같이 갈보리 교회도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행사와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 자체의 힘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온갖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온 교회가 휴식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1년 동안 오로지 성경 읽기와 기도와 개인 전도에만 전념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논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와 개인전도입니다. 이 기본적인 활동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바빠서 기본적인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활동은 하지만, 신앙은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정체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정체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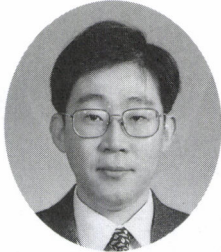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면, 성경공부반에도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각종 행사와 회의에 바빠서 성경을 배우는 일은 뒤로 밀어 놓았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에 힘쓰는 분이시지만, 기본적인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사순절(Lent)이 다가왔습니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40



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주님의 광야 40일 기간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며 절제와 구제와 헌신의 기간으로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앞의 갈보리 교회는 1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 만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행사와 회의와 활동을 절제하고,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와 성경공부와 기도와 개인전도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힘과 교회의 능력을 추구하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인격이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안남**



이 승 준 목사
(대학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순절의 유래와 의미

사순절(Lent)은 교회력에 있어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 중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이 절기는 부활 신앙의 고백 속에 회개와 성장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훈련과 성찰을 집중하는 시기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력의 기간이기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 사순절은 회개의 특별한 날로서의 재(灰)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수난의 절정인 성금요일(Good Friday)의 깊은 고통으로 마쳐진다.

한국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40일의 절기로서의 사순절은 오랜 역사적 발전을 통해 형성되어왔다. 무덤에서 주검으로 머무셨던 예수님의 40시간을 염두에 두어, 1세기의 교회는 사순절을 40시간의 절기로 지켰다. 40시간의 절기는 부활절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림으로 마쳤다고 한다. 그 후 3세기에 들어 40시간의 사순절은 점차 6일간의 절기로 확대되었다. 6일로 지켜진 사순절은 4세기경 예루

살렘교회에 의해 성주간(Holy Week)으로 의미부여가 되면서 철저한 금욕과 금식을 지키는 교회의 절기가 되었다.

6일의 사순절은 이후 계속해서 일년 365일의 십일조를 의미하는 36일간의 절기로까지 확대되었다. 731년경 샤를마뉴대제 시대에는 36일에 4일이 추가되어 오늘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40일의 절기로서 사순절이 확정되었다. 재의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4일이 추가된 것이다. 중세교회에 있어 40이란 숫자는 남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던 날이 40일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문 날 수도 40일이요, 출애굽공동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보낸 시기도 40일이란 점에서 40이란 숫자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 40일의 절기라는 사순절이 실상은 부활절로부터 46일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주일은 사순절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더 기억할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목요일과 토요일도 포함하지 않는 동방교회는 사순절을 거의 8주간의 기간으로 보낸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서방교회 전통에 기초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사순절은 과연 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며 교회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제 살펴보자.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첫째, 사순절은 세례입교교육의 예처럼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절기로 지켜왔다. 둘째, 사순절은 철저하게 회개와 참회의 절기였다. 사순절의 색깔인 보라색은 곧 회개와 참회의 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결혼은 금지되었고, 화려한 오르간 연주와 공공장소에서의 각종 오락과 여흥도 금지되었다. 셋째, 영적 훈련의 한 수단으로 금식을 지키는 시기로 지켜졌다. 사도시대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가 수난을 당하신 성금요일은 금식의 날로 지켜졌다. 그 후 성주간 중의 성금요일과 토요일이 금식일로 지켜지더니 4세기경 사순절 전 기간이 일종의 금식절기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금식이라 함은 육식을 금하고,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회는 사순절의 금식행위를 교황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였고, 이후 사순절 금식의 전통은 개신교인들에게는 낯선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초대, 중세교회가 지켜왔던 금식의 목적은 적어도 두 가지 근본적인 의미가 있었다. 금식을 통해 영적 훈련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식함으로 남는 양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랑과 자선의 실천적 행동도 교회가 지켜왔던 금식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사순절이 오늘 한국교회와 영락의 가족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는 이 전통을 지켜가야 할까? 첫째, 사순절은 우리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자기성찰을 통한 영적 훈련(spiritual discipline)의 절기로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풍족하고 편리한 현대사회의 각종 이기와 혜택으로 인해 성도로서 잃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적극적인 자기 절제와 부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전통으로 간직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십자가의 영광이 승할 수 있었듯이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의 증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된 소식을 세상으로 증거 하는 선교(mission), 전도(evangelism)와 사회봉사(social servi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사순절은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철저한 격리를 체험하는 기도하는 시기,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는 자리로서 수련(retreat)과 부흥(revival)의 절기로 한국교회와 우리 심령가운데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안남**

2003.1.19 오후에 일어난 이야기



장진호 은퇴장로
(전 경희대 교수)

오늘 주일, 오후 세시에서 여덟시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 세 토막이다.

하나는 광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길가에서 만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백화점 안에서 당면한 이야기이다.

첫째 이야기 :

서울 시청 앞 광장은 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한 때는 혁명군의 서슬이 시퍼런 그 위엄의 군화 소리를 진동시킨 곳이고, 한 때는 월드컵 축구의 열기로 함성을 올린 곳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광장은 뜨거운 기도의 소리로 장안을 울리고 있다. “제2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회개와 통회의 모임이다. 나라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아파하는 통성 기도의 현장이다.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한 가난한 한국사람들이 지금 결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떼를 쓰는 시간이다.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단합을 위하여, 북한의 핵개발 중지와 NPT 탈퇴 철퇴를 위하여, 주한 미군 철수 반대와 반미 감정 자제를 위하여, 국가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대 화합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조목조목 제목을 떠올리며 간절한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온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 “할렐루야”로 화창한다. 사람들의 소리인가 우레 소리인가!

옷을 찢는 자와 마음을 찢은 자, 그 누구를 가린단 말인가? 예수를 아는 자도 예수를 모르는 자도 무슨 상관이 있던 말인가? 고장의 나누임도 세대의 등돌림도 무슨 거리낌이 된단 말인가? 어제의 미움도 그제의 싸움도 어떤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말인가? 지금 이 광장은 온통 통회하는 기도의 용광로로 변해 가고 있는데!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성들이 이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 용해되어 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 가슴을 치는

회개와 눈물의 도가니이다. 잘난 자도 못한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못 사는 줄 아는 죄인들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인(義人)이라고 나서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한결같이 죄인들이란 말인가? 그렇다. 죄인들의 모임이란 말인가? 그렇다.

나라와 민족의 극한적 재난과 위기의 원인을 똑바로 통찰한 죄인의 무리들이다. 그리고 그 치유의 유일한 길을 오직 여호와에게서 발견한 지혜자의 무리들이다. 애국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아픔이 가슴에 미여질 듯 꽉 차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다. 신앙과 신념으로 무장된 용맹스런 그리스도-한국인 전사들이다.

다섯 시 조금 전이다. 예정된 기도회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양이다. 흩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시청 앞 광장의 뜨거운 열기와 회오리바람이 지나간 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각각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 속에 들려 오는 고요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다시 간구 하는 시간이다.

둘째 이야기 :

사람들이 흩어진 광장 둘레를 거닐며 잠시 주위를 살피본다. 신문 한 장 바람에 날려 다니지 않고 말끔하다. 교우들이 계속 사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광장에서 을지로로 향하려면 롯데 호텔 앞쪽 인도를 통하게 되어 있다. 그 길가에 모래보관함 같은 기다란 상자가 놓여 있고, 그 둘레에는 방금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우리가 버리고 간 쓰레기 주머니들에 틀림없다. 업

청나다. 늦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아직도 이어지는 모양이다. 바로 그 앞에서 어느 연로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는 잠시 후 장갑을 끼고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앞에서부터 뒤지기 시작한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중년의 여교우 한 분과 여자 청년 두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계속 국기와 쓰레기봉지를 버리려는 사람들을 막기 시작한다.

“이 곳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국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세 파수꾼들이 둘러 서 있는 가운데서 두 노인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태극기를 찾아 가려내고 있는 것이다. 함께 푹 푹 말아 쭈셔 넣은 국기와 성조기, 그리고 찢어진 그 깃발 종이 조각들을 소중히 찾고 있는 그 얼굴 표정들엔 열기와 슬픔이 교차되어 있는 것 같다. 마침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지자 세 교우들도 합세하여 깃발 찾기 수색 작전이 본격화되어 간다. 이런 것을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던가!

세분 자매들은 우리가 마무리 할 터이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서 추위를 피하라고 강권한다. “고마워, 고마워요” 하면서도 물러 설 노인들 같지가 않아 보인다. 이윽고 열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수색 작업은 한 무리가 지어진 모양이다. 마침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비상용 대형 주머니 속에 버려진 태극기와 성조기의 잔해들이 틈새 없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한아름 안은 채 일행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소각해야 할텐데, 잘못하면 또다시 어느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이 아닌가?” 마침 순찰 경관들이 지나는데 물어봐도 묘안이 안 나온다. 겨우 그들에게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 것을 사과

하고, 마음과 뜻을 모은 일행은 서로들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다.

필자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다. 그리고 이제 어찌할 것인가 두 노인의 거동을 살펴본다. 그들은 결심이나 한 듯 초라한 보따리들을 안은 채 롯데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프론트 데스크를 향해서 그 앞에는 젊은 직원 두 사람이 일을 보고 있다. 두 노인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애원하듯 사연을 아뢰고 있는 모양이다. 젊은이들은 고맙게도 훼손된 국기와 종이 조각들을 모조리 받아 호텔 소각장에 보내기로 하고 노인들을 안심시킨다. 고맙고 친절하 우리의 젊은이들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리고 조각을 다시 당부하며 발길을 돌린다. 호텔 안은 훈훈하다. 두 노인은 로비에 앉아 추위에 굳어진 몸을 녹이고 다시 집으로 향할 모양이다.

셋째 이야기 :

롯데호텔에서 그 곳 백화점까지는 긴 복도를 거쳐서 통하게 되어 있다. 마침 일요일 저녁 시간이 되어서인가 사람의 물결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다. 젊은이들이 쌍쌍이 무리 지어 온통 즐겁고 신기하고 흥분이 넘실거리는 매력의 공간인 것 같다. 무슨 명품들이 그렇게도 많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있는가! 참으로 놀라운 이 땅 위의 한 모퉁이 별천지이다. 그 비싼 술, 모두가 외국산의 명품들이라고 한다. 생산지의 상류층들도 엄두를 못 낸다는 그 고가의 양주들이 분명 이 고장의 시장을 노리고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 명품의 거리에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또 밀려 나가고 있다.

필자도 그 곳에 끼어 출렁이는 사람의 물결에 따라 한 물체로 휩쓸려 움직일 따름이다. 방향이 어딘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 분명 나는 출구를 빠져 나와 미도파 앞에서 시내 버스를 타야 하는데, 지금은 이곳 군중 속에 매몰되어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이 속에서 나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리고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생각의 앞과 뒤가 뒤죽박죽 해지는 가운데 무슨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 분명 이곳은 우리 땅. 한 모퉁이인데 여기에는 휴전선도 안 보이고, 적군의 미사일도 안 보인다. 흑한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 보초병의 모습도 안 보인다. 전쟁의 불안도 핵의 위협도 남의 소리이고, 역사는 낮잠을 자고 있는지, 그리고 조국은 구름 위에 떠돌아다니는 낭만의 구름 조각인지! 친구는 멀리 해야 하고 원수는 가까이에 끌어 들여야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의 국가관은 일인칭(一人稱)에서 삼인칭(三人稱)으로 격을 높여 놓고, 무국적의 이념의 유희를 즐기려는 듯 우리는 이 땅위에 살면서도 외국인이요 이방인으로 착각된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몽롱한 생각은 첩바퀴를 돌며 끊겼다 또 다시 이어진다. 어디선가 갑자기 찬바람이 몰려온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일시에 정신을 일깨워 준다. 이제 겨우 출구에 다다른 모양이다. 빨리 서둘러 버스에 올라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먼 집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다.

겨우 버스에 오르니 차 속은 만원이다. 무리하게 걸어서인가 다리 근육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나 서서 갈 수밖에 없다. 한참 후에 딱한 사정을 눈치챈 어느 부인이 자리를 양보한다. 고마운 분

을 만난 것이다. 자리에 앉으니 눈이 감기면서 열은 잠결에 오늘 오후에 이야기들이 뇌리를 스쳐 지난다. 각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와 교훈이 하나씩 풀려 나간다.

나라 사랑 - 이는 조국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신앙고백이다.

기도- 홀로의 기도 속엔 조용한 희열이 있고 무리진 기도 속엔 격랑의 감동이 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다. 신앙과 생활이 유리된 우리의 현실이 오늘의 믿는 자들의 모순율이다. 기도회의 감동이 수분도 못되어 자기의 정체성을 흩어 버리게 하는 우리들! 국기(國旗)는 이상화의 상징도 신성한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국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랑하고 아껴야 할 한 정신적 정서적인 지체이다. 그것은 내 조국과 역사의 상징이요,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의 피가 묻은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질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율이 아닌가!

내 자신의 살을 꼬집었을 때 아픔을 느껴야 살아 있는 '나'이다. 내 나라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야 한 겨레가 된다. 나 자신의 진정한 자각은 역사를 도피할 수 없는 나의 실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존적 자각으로 역사의 도전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확인된 우리의 간증이다. **안남**

3월 목회력

일자	요일	행사
2일	주일	성찬식 세례입교식 장로, 안수집사 1차 선거 교사양성반 개강
4일	화	전도폭발훈련 10기 개강
5일	수	남자 구역지도자반 개강
6일	목	여자 구역지도자반 개강
8일	토	직장인 토요전도폭발 개강
9일	주일	제직회
16일	주일	장로, 안수집사 2차 선거 새가족 환영회
21일	금	심방준비회
23일	주일	사회봉사주일 장로, 안수집사 3차 선거
25일	화	당회
26일	수	노인대학 개강
30일	주일	장년 성경공부반 개강

3.1운동의 정신을 기독인들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윤 경로 장로
(새문안교회,
한성대 교수)

‘3·1절’ 하면 우리는 그날 전국에서 물결치던 태극기 행렬과 만세의 함성 그리고 “오등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노라”는 독립선언문을 떠올린다. 이밖에도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며 옷깃을 여민다. 그러나 그 함성과 태극기의 행렬이 지난지 올해로 84년 전 옛 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때 그 일을 직접 말해줄 사람도 생생하게 증언할 사람도 찾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성경을 읽으며 2천 년전의 예수님을 만나듯 우리 민족사를 통해 3·1운동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참여정신, 애국·애족 정신

3·1운동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민족문제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와 선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참여정신’과 ‘애국 애족정신’이라 할 것이다. 일제의 무자비한 무단 통

치 하에서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생각했다면 감히 반일 항일운동인 3·1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도 중요하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위도 귀하지만 나라 없는 설움과 이픔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바로 이점을 오늘에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은 계승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은 민족문제,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외면하는데 익숙해왔다. 말하자면 그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니 교회와 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정교분리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할 때 정치, 사회적 문제가 결코 신앙문제와 분리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상과 같은 참여정신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합정신

둘째는 '연합정신'이다. 3·1운동을 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계의 여러 교파와 교단이 하나로 연합하여 거대한 민족운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말하자면 이 운동이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와 교리를 달리하면서도 민족문제에 한 마음과 뜻을 모아 연합함으로 가능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3·1운동이 정신자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정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신과 이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나갈 수 있어야겠다. 적어도 민족문제 즉 국가의 생존과 안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모양 당리당략에 따라 내분과 당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좀더 성숙한 자세, 좀더 열린 자세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대로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는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가 나설 때 우리는 3·1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식, 역사의식

끝으로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31운동과 한국교회와는 밀접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니 익히 아는 대로 31운동에 불을 집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계 지도자가 16명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기독교의 열악했던 교세에 비해 민족대표 중 거의 반에 이르는 지도력이 기독교계 목사, 장로 및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1천7백만명 정도였

는데 이중 기독교인은 30만을 채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 인구의 2%에도 이르지 못하는 약한 교세였지만 민족대표 가운데 반수에 이르는 대표를 기독교계에서 배출할 만큼 당시 우리사회에서 짐하는 기독교의 책임의식이 높았다. 또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견인한 장소와 인물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3·1운동 정신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민족의 험난한 민족사와 역사적 과를 함께 해 왔다.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인 1879년 경부터 중국(만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로스와 맥킨타이어 등 스코트랜드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접촉한 의주지방의 백홍준 서상륜 등이 한글성경(쪽복음)을 간행하여 1883년 경 국내에 들여와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를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시키는데 한국기독교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개항이후 진행된 한국근대사의 개화운동- 구국계몽운동- 민족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는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등에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늘 선봉에서 왔다. 다시말해 우리민족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그 때 그때마다의 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앞장서온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다. 3·1운동은 바로 이러한 여러 사례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3·1운동 8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상과 같은 한국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역사성과 정신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안남**

오늘의 교회 공동체

- 에베소서 4장 16절 -



나 학 진 은퇴장로
(전 서울대 교수)

이익 사회와 공동체 사회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이다. 토니스(Toenies)라는 사회학자는 사회(society)와 공동체(community)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이익사회(Gesellschaft)와 공동체사회(Gemeinschaft)를 구별하였다. 이럴 때 교회를 위시하여 가정이나 학교는 후자에 속하고 일반 사회(정치나 경제 등)는 전자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의 사회학은 이러한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공동체의 형성이 쉽다고 생각하면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흔하게 사용한다. 지금은 '유럽 연합(European Union)'으로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로 표시했던 것이다.

거리가 축소돼 자주 접촉하면 우의(友誼)가 이

루어져 공동체가 쉽게 형성된다고 생각함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접촉을 하면 할수록 결점이 노출되고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때가 있다. 국제연합이 왜 조용하지 못한가를 이해하면 이 말의 타당성을 실감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 미국의 이혼율이 60%이며 한국의 이혼율도 40%에 이른다고 한다. 거리가 없는 접촉이 역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공동체의 형성이 쉽다고 생각함은 잘못이라고 본다.

교회의 참 모습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바벨탑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뜻이 깊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언어의 혼란으로 이어져 탑쌓기를 중단하고 흩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순절에서 성령의 역사로써 이루어진 교회의 형성에서 기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모습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게 되는데, 교회는 참된 공동체의 표본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물론 교회 공동체도 잘못될 수 있다. 교회도 사회 속의 조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로 인해 교회의 본질이 왜곡될 때에 그렇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므로 교회의 본질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참된

공동체의 으뜸이라고 생각된다.

기술과학의 발달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초래했다. 기술과학 중에도 유전자 공학과 두뇌공학(컴퓨터 과학)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단절된 개인 (atomistic individuals)'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에 교회 공동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증대되는데, 이제 에베소서 4장 16절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살펴본 후에 두뇌공학이 초래한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고 기록돼 있다. 바울은 이것을 진전시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 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그리스도에 의존된다는 생각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골로새서의 온 몸은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지만, 에베소서의 온 몸은 교회를 나타내며,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초래되는 힘으로 인해 교회가 자란다는 것이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 16)”라고 표현돼 있다. 몸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영적인 힘으로 접촉하고 적절하게 작용할 때에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의 교제(교통, koinonia)를 나타낸다. 회개가 일종의 죽음이라면 용서는 다시 일어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어다(로마서 6장 11절)”고 표현한다. 이렇게 죽은 자이면서 다시 산 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으로, 바벨탑의 이야기와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의 인간에게 부족함은 없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 먹지 말라고 명령된 선악과에까지 손을 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욕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니, 이것을 원죄(原罪)라고 하는데 인간의 오만한(hubris)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술과학의 덕분으로 인간의 삶이 편해졌다. 기술과학의 혜택을 멀리하려는 집단이 있지만(예: Amish), 그들도 전기나 전화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는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기술과학의 혜택을 외면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기술과학이 역으로 인간을 해치는 데 사용되는 역기능도 있는 것이다. 전쟁의 무기가 바로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기술과학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은 지식추구에서 욕심을 내면서 계속하여 욕구 충족을 도모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보자. 사람의 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초래할 나쁜 결과에 상관없이 끝내 복제 인간을 만들고야 만다. 거대한 컴퓨터를 만

들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물어 보았다. 왕하고 소리를 내더니, 지금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하다. 기술과학이 잘못 사용될 수 있음과 함께 기술과학 자체에 이미 옳은 가치를 외면하는 인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컴퓨터에 의한 기계적 만남의 세태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인터넷이 초래한 사회의 변화는 혁명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사회,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일과 여가 등의 전통적인 구별을 흐리게 만들었다.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 5일 근무를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말을 즐기려고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계획으로 주일 교회의 참석이 격감될 것이라는 말이다.

개인이라는 개념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에서 '단절된 개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이다. 더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하는 인격적인 접촉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기계와 기계로 대면하면서 인격적인 인간관계는 흐려지고 만다. 그래서 어느 기업체의 사장은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게 했다는 말도 들린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대하듯 습관화되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는 인격적 만남의 장

이렇게 변하는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며,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위로하며 협조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귀중한 공동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지속되는 것이므로 주일 예배의 참석을 등한히 할 유혹을 처음부터 물리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의 본질이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으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질이 왜곡돼 교회가 잘못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 왔지만 불만을 품은 형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가 편안하지 못했음과 같이, 교회도 그 본질에서 이탈될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때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계속 묵인하는 것이 참된 사랑은 아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 이니라(히브리서 12: 6)"고 기록돼 있다.

정의도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거꾸로 정의(正義)를 겨냥한 개혁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정의도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정의도 변질되기가 쉽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언자)를 보라. 그들이 왕이나 사회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사회의 개혁을 도모했지만,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밑에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외쳤다는 말이다.

-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택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내세운 표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는 교회로 돼야 할 것이다. **만남**

창립 9주년 맞은 ‘은퇴 제직 상조회’



영락교회 은퇴제직 상조회가 지난 1월 22일 아홉 번째 총회를 가졌다. <사진>

1994년 12월, 평소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함을 목회철학으로 삼던 한경직 원로목사님의 배려로 당시 이창로 원로 장로님과 함께 뜻 있는 60여명의 회원들이 본 교회 선교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락교회 은퇴 제직 상조회가 발족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제직으로 임명받고 봉사하다가, 만 70세로 정년 은퇴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퇴 제직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 끝에, 은퇴 자로서 할 일은 오로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상호간 교제를 넓히고 상부상조하면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조직하게 된 것이다.

1994년 12월 첫 조직과 함께 회칙을 정하고, 5차에 걸쳐 개정 보완하였으며, 초대 회장에 이창로 장로님이 추대되어 1998년 말까지 4회에 걸쳐 중임 하셨으며, 5회·6회(1999~2000)회장에는 김시환 장로님, 7회·8회(2001~2002)회장에는 이동범 장로님이 역임하셨고, 금년 9회(2003년)회장에는 강용수 장로님이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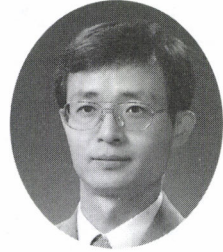
창립당시 68명으로 시작된 은퇴제직 상조회는 은퇴 제직들이 해마다 늘어나 현재 가입회원은 435명이나 되며 그간 별세 회원만도 50명이 넘는다.

지난 1월 22일 낮 우리교회 선교관에서 거행된 제9회 총회에는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부에서는 임기 만료되는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회장 강용수 장로님 외에, 부회장에 김철우 장로님과 공정인 권사님을 선임했으며, 총무에 홍형길 장로님, 서기에 김영기 장로님, 부서기에 노강월 권사님, 회계에 정원일 장로님, 부회계 백은복 권사님, 감사에는 허 근 장로님과 김종탁 장로님을 선임했다.

영락교회 은퇴제직 상조회 가입은 만 70세로 정년 은퇴한 제직은 은퇴후 3년 이내에 상조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입회금 10만원과 함께 연회비 1만원을 포함 도합 11만원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정식회원이 된 뒤에는 별세회원이 발생할 때마다 부의금으로 1만원씩 상조회에 납부하면 된다. 입회금 십만원은 상조회 기금으로 하고 그 과실과 유지의 의연금으로는 선교사업에 사용하며 연회비 1만원은 분회 및 기타 제반 경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은퇴제직상조회는 아직 가입치 않은 은퇴 제직들이 함께 고귀한 뜻을 이뤄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로운 회원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취재/ 인 미 기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노철규 목사
(교육부, 강동·송파교구)

소원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모습 뿐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함을 싫어하십니다. 조급함은 쓰레기만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내하였을 때 믿음의 사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소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방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지만, 바벨론의 왕에게 쓰임 받는 소원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는 대신, 거룩을 위해 구별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주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잃어버린 성적을 자주 보고 있으면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자유로운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자주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요셉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감옥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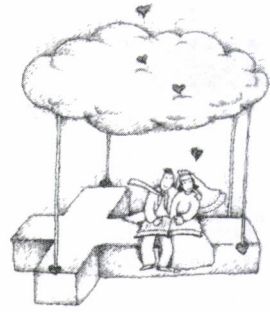
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형통의 의미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시면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당시 최고의 정치인, 경제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살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고통까지 주었던 이스라엘 형제들까지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원을 가지면 강한 자가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주변의 연약한 자까지 살리는 자입니다.

끝까지 소원을 품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소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원을 끝까지 품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기다린 자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소원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생각, 마음, 습관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소원은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기회와 우리의 준비가 만났을 때 성취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며,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킴으로 기다리십시오. 소원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



결혼을 축하합니다!!

〈2003.1월 28일~2월 22일〉

♡1월 28일(화)

- ◇ 김 훈군(김원환씨-김순금권사 차남)
김근정양(김남극집사-김영자집사 3녀)

♡2월 8일(토)

- ◇ 고명균군(고명채목사-김정희권사 장남)
김유진양(김동욱집사-김태희권사 장녀)

♡2월 22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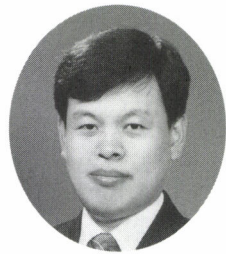
- ◇ 박 일군(전현식여사 3남)
김지은양(김동근씨-이명자여사 장녀)
- ◇ 이재훈군(이성묵집사-이 정 권사 장남)
손민정양(손덕근집사-윤영희집사 차녀)
- ◇ 이종택군(석임순여사 3남)
이선애양(정봉애권사 3녀)



친구같은 하나님, 친구같은 예수님

-2003년 고등부 겨울수련회-

- 관련사진:표지 -



이주철 목사
(고등부, 고양 · 일산교구)

고등부 학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간혹 머리에 얹은 내 손끝에 그들의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내게도 전달되었는지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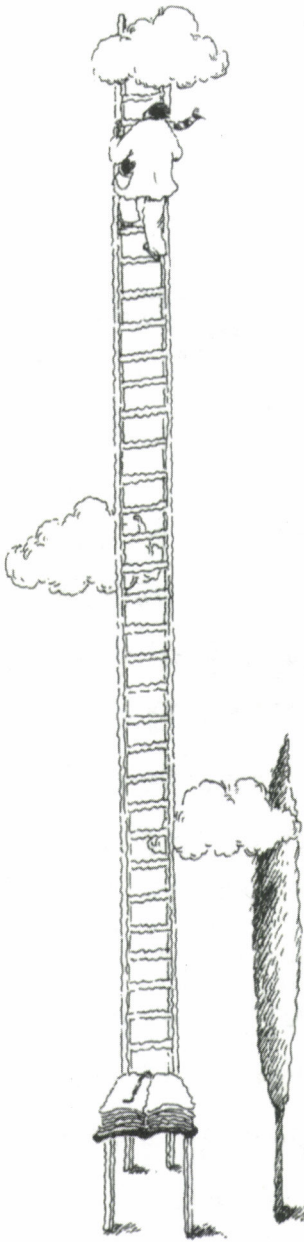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 겨울 수련회 때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에 강사 오정현 목사(마포, 영등포 교구)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생 시절은 즐겁고 활기차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듯했다.

2003년도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1월 19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영락 기도원에서 있었다. 수련회 주제는 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했다. 참여한 인원은 교사 60여명을 합해 모두 260여명이었다. 아쉬웠던 점은 수련회 장소였던 기도원이 가까운 탓인지 유동 인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조별 대화식 성경공부였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성경공부를 해 나가는 것인데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생소한 것이라 성경공부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잘 적응 할 수 있을지, 많은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염려되는 점이 많았다. 이런 성경공부를 해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첫 번째 성경공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반응이 들려왔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토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한 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토의식 성경공부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수련회였다. 성경공부를 인도했던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우리가

하
나
님
께
로

더
가
까
이...



학생들을 너무나 어리게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의 특징은 역시 툭툭 튀는 재치와 틀에 메이지 않는 창의적인 생각이다. 이들의 재치는 조 이름을 정하는 데서부터 나타났다. 바울을 따라조, 놀아조, 밥조... 믿음조, 사랑조, 모세조, 바울조 등에 익숙한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이름들이 아닌가?

학생들의 진면목은 8개 특활반의 발표와 각 조의 역할극 시간에 절정에 달했다. 댄스는 기본이고, 기도원 분당 불빛이 화려한 조명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촛불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 와서 모두를 웃음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었다.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서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장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주로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시다. 아마도 지금까지 어른들이 지내온 시절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에 그런 하나님 상이 마음에 새겨진 것 같다.

그러나 고등부 학생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예수님이시다.

춤을 출 때 같이 춤을 춰주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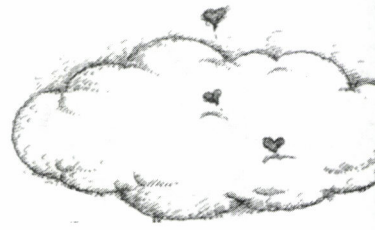
놀 때 같이 놀아주시는 예수님

족구할 때 같이 공도 차시고 응원도 해 주시는 예수님

외로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얼마 전에 이제 고3이 된 학생들이 내게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넸던 기억이 난다. “목사님, 목사님은 제 친구예요, 평생 제 친구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요즘 학생들이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수련회 때만 되면 예수님을 영접했던 고1때 여름 수련회가 생각이 난다. 흥천 어느 중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 옆에는 작지 않은 냇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 곳에서 아침에는 세면을 하고 낮에는 물놀이를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하며 촛불을 쬐은 십자가를 그 물 위에 띄웠다. 아마도 그때 느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번 겨울 수련회가 이런 추억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다. **안남**



눈부신 하늘 아래서



-2003년 대학부 겨울수련회-

김의혁 (대학부 회장)

대학부 겨울 수련회가 1월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학부 겨울 수련회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는 주제로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고요한 속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대지를 하얗게 뒤덮은 눈, 차갑게 보일 정도로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설악산을 병풍으로 하고, 앞에는 추위로 실개천이 얼어붙은 곳. 그곳은 바로 우리 대학부의 겨울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장소인 추양수양관이었다.

수련회를 하루 앞두고, 선발대가 미시령의 험준한 길을 넘어 수양관에 도착했다. 선발대로 도착한 이들은 아름다운 설경에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애초 예상했던 수보다 수련회를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만큼 준비하는 손길도 한층 바빠졌다.

수양관 한쪽에서는 몇몇 지체들이 집회 장소를 정성껏 꾸미고, 찬양팀은 열성을 다하여 마지막 연습을 하며 준비했다. 그리고 야외에서는 지체들이 행여나 빙판길에 넘어질까 염려하여 형제 몇 명이 얼어있는 도로를 삽과 곡괭이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렇듯 귀한 섬김으로 뿌려진 사랑이 곳곳에 스며

들면서 수련회는 차곡차곡 준비되었다. 어느덧 밤의 적막이 찾아오고, 늦게까지 일해 피로했는지 다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첫째 날 오후, 대학부 지체들을 가득 태운 버스들이 줄줄이 선발대의 환영 속에 수양관 앞에 들어오고, 오랜 시간 소망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오던 겨울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적적하던 수양관은 금새 젊은 열기로 달아오르고 활기를 띠었다. 같은 조가 된 10여명의 지체들이 자신을 소개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자, 낯설고 어색한 시간도 잠시, 서로 간의 막힌 담은 조금씩 무너지고 밝은 웃음을 머금고 친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대학부 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은 조별로 이루어지는 깊은 만남과 나눔의 시간이기며, 그 시간은 참 중요하고도 귀한 시간이었다.

주 강사로는 GP선교회의 대표로 계시는 김형익 선교사님을 모셨다. 3일간의 저녁집회 시간에는 김형익 선교사님의 열정적이고 도전되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간절한 기다림과 준비하심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주셨다. 우리가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자기중심적인 불평들을 내뱉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



함들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성장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를 손수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미 아시는 주님, 입 밖으로 말을 뱉기도 전에 이미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심중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이미 응답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대학부 지체들이 깊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일출을 보기 위해 다함께 동해 바닷가로 나갔다. 날씨 탓으로 비록 일출은 못 봤지만, 겨울 바다가 주는 독특한 맛에 흥겨워졌다. 각 조별로 모래사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겨울 바다를 마주하고 QT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오후에는 설악산으로 산행을 갔다오면서 겨울산의 정취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작품에 감탄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다.

셋째 날에 있었던 천태혁 선교사님의 '예배 컨퍼런스'라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전기 이상으로 앰프가 손상되는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선교사님께서도 마이크도 없이 육성과 피아노로만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가장 단순했던 그 시간이 도리어 가장 감격적인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 감격의 여운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다.

셋째 날 밤의 축복과 결단의 시간에는 대학부 이승준 목사님과 김형익 선교사님께서 일일이 모든 지체들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중의 찬양시간

지체들도 저마다 서로를 부여안고 기도하며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의 마지막 밤이어서 각 지체를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했다. 축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갈라놓던 담이 허물어지며, 서로를 향해서 기도와 사랑의 짐을 지겠다고 결단하며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의 원을 그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계심을 느껴졌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은혜의 자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3박4일간의 일정은 그야말로 물 흐르듯 순식간에 흘러갔다. 이곳에 다 적지 못하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으로 본부 팀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고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귀한 헌신을 하였다. 조원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던 조장들의 아름다운 섬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매달렸던 조원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수련회의 모든 순간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예배였음을 고백하게 된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다시금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음을 고백하게 된다. 수련회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도한다. **안남**

문화 사역자의 인성개발과 은사(성품)

김혜영 집사

(홍보출판부실행위원, 문화사역팀운영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나 원리는 적다. 방법은 항상 변하나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외젠 위어스비가 그의 원리에 대한 관점을 기록한 글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개발하며 세상 문화를 정제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는 기독교 문화를 개발해 가는 ‘춤’ 사역자 들을 위한 ‘문화 사역자의 인성개발,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문화사역자의 동기 발견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 큰 비전으로,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고 있음으로 등등 나의 문화사역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점검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점검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달란트를 개발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유용한 도구로 또는 소명으로 부르셨다. 나의 모양이 어그러지고 힘이 들고 답답할 지라도 이미 죄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부르셔서

등을 밀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나의 정서와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역의 일을 맡기신 것이다. 곧 내 안의 문화사역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나를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는 문화 사역자의 사명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말씀 가운데 검증됨

인격(인성개발)개발은 평신도 사역 가운데 순결과 성실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말씀 가운데 검증됨을 말하며, 인격개발은 많은 재능보다 성공보다 앞서야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직임을 맡아서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가정 총무로서 전문적인 일을 맡게 되었고 중국에는 총리대신의 역할까지 맡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은 진실성에 대한 검증의 한 부분이다.

은사개발을 위한 검증

문화사역자는 성공적인 사역의 표본을 세워 나가기 위해, 충분한 저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간증)과 은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헌신이 어려워진다. 어디서든지 교회나 선교단체 안에는 지도자층이 있다. 지도자층은 미성숙 단계의 평신도들과 중간계급의 지도자 훈련을 위해 집중해서 연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살필 일들은 평신도 사역자의 '적성'을 탐지하며, 사역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연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경험(간증)이 어떤 것들이 있나 연구한다. 이는 평신도 사역자의 영적 성숙과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검증,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을 통해 사역자의 자질을 알아볼 수 있다.

말씀 검증(Word check)

하나님의 사역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진리를 하나님께 받는 이 은사는 지도자의 영향력의 기반이다. 영향력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주는 기능에서 나온다. 말씀의 은사는 사역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가르치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미성숙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 매일 말씀 앞에 서는 법을 가르친다. 이를 위해 매일의 말씀묵상, 말씀 훈련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성경공부, 영적 제자 훈련 등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한다. '자라나는 지도자'는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먼저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는 것은 지도자가 영적 권위를 모으는 일이다. 자라나는 지도자는 그 자신에게 많은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혼자서가 아닌 전문적인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영적 역량을 키워간다.

진실성 검증(integrity check)

내 속의 내적 확신(인격검증)의 지속을 위해 말씀의 통로를 통해 검증된다. 예를들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적 확신이 분명했으므로(음식물 문제에 대한 신념으로) 검증에 바른 반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검증은 진실성 검증의 기반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치관이 정립되는데 중요하다. 유희를 이길 수 있으며, 사역의 갈등에서 '믿음시험' 가운데 내 자신의 소명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은 견고함을 위한 결실임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정직 할 때 하나님은 배상하신다.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높이신다.

순종 검증(obedience check)

말씀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받는다. 그러므로 회심과 생의 가치관이 변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이나 서원이 실천 가운데 내적 확신의 견고성을 갖게 된다. 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며 어린 사역자가 준비 기간에 순종검증을 통해 회심과 생의 가치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뀐다. 예를들어 삼상 15장13-14절 (사울의 순종검증 실패) 사울은 아말렉을 패배 시켰으나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므로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다.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견

고히 서는 지도자를 위해 순종검증을 계속 하신다. 창세기 22:1-2 에서 이삭은 장자 약속이기에 더 어려웠다.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고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 순종일 경우가 있다(인간의 의지를 잘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인간의 계획,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세도 교만이다). 아브라함은 진짜 칼을 들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귀히 보셨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며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교회의 예배를 위해 문화사역을 도입하신다. 이를 위해 사역자는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한다. 문화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예배의 역할로 세우시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한 의사 전달 상황 3가지 (Address-Situation)

1. 케리그마 (Kerygma)는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듣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케리그마는 사람을 믿음으로, 개종으로, 제자로 부른다(말씀으로 전도, 선교).

2.코이노니아(Koinonia(Fellowship))는 느낌을 나누는 것, 주고받는 것, 동등한 상호 관계 모두가 코이노니아의 성격이다. 그것은 격려와 양육과 위로와 확인이다(빌 2:12). 참여(participation)의 뜻도 있으며 비형식적이고 긴장이 없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며, 상처받고 고독하고 타인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말하기도 한다(구도자 예배).

3. 레이트루기아(Leitrougia(worship))는 각 사람의 지성 감성 전 인격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 회중을 통한 받으실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문화를 통한 외적사역).

문화 사역자는 예배 가운데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자로 회중에 전달해야 하는 전인격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역자의 준비를 해야한다. 문화 사역자의 인성개발은 말씀으로 반응 할 때 변화를 일으킨다. 지성과 감성 전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드러지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자가 된다. 내 안에 잠재된 여러 모양의 은사와 사명이 선다면 하나님은 사역자를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 검증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에 반응함으로 영적 능력을 키워주신다. 순종 검증과 진실성 검증은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며 내적 확신의 견고함을 이루어간다. 사역자는 삶을 재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문화사역자의 은사개발을 통해 인격과 감성이 진실성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복음의 효력을 발생한다. 예배 가운데 몸으로 증명하는 문화 사역자로서 풍부한 영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다. **안남**

‘영락 선교제자훈련학교’를 소개합니다



척수연 권사
(선교부 선교훈련 팀장)

1. 목적

영락교회 선교제자훈련학교의 목적은 1)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2) 성경적인 원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맡겨주신 각자의 영역에서 세상문화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성장케 하며 3)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보내는 선교사(선교후원 및 선교동원)와 가는 선교사(장, 단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2.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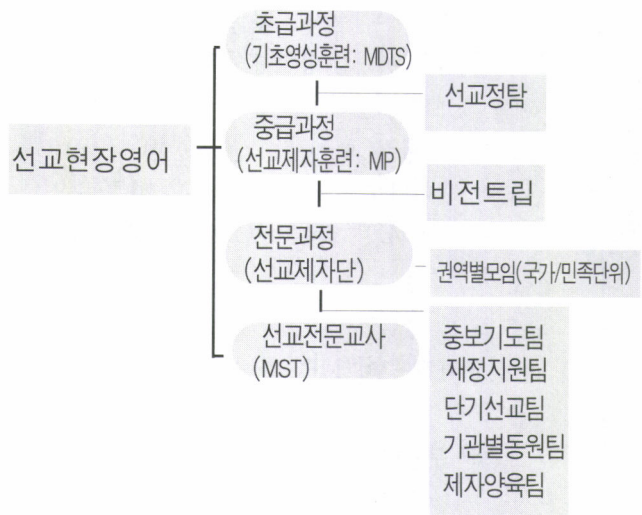
훈련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 교회 중직자, 교회학교 교사, 대학부와 청년부 리더, 남녀선교회 및 선교 관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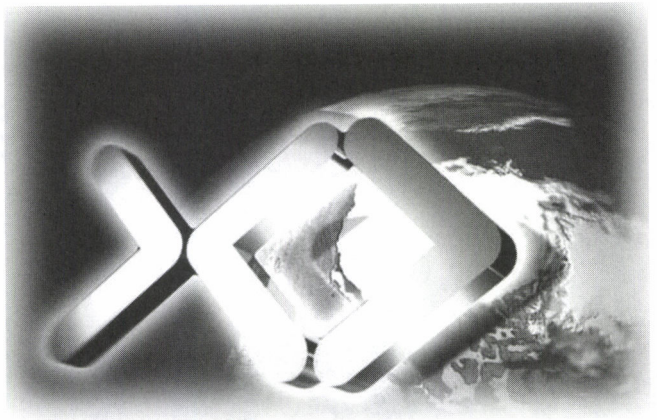
3. 과정

1)원칙: 각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가능한 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단계별 과정

- 1단계 : 기초영성훈련
(MDTS:Mission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 2단계 : 선교제자훈련
(MP:Mission Perspectives)
- 3단계 : 선교현장영어
(MFE:Mission Field English)
- 4단계 : 선교제자단
- 5단계 : 선교전문교사
(MST:Mission Specialist Training)





4. 각 과정내용

1) 기초영성훈련(MDTS)

가. 개요

성경적인 원리원칙을 가르쳐 진리의 말씀을 개인적인 삶에 적용케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영적인 영역과 선교일반에 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영역을 양육하여 타문화권 선교 및 전문인 선교등 다양한 선교전략을 접할 수 있는 과정이다

나. 훈련내용

영성훈련으로는 중보기도, 권리포기, 섬김의 지도력, 공동체 생활과 관계, 성령과 성령세례, 말씀묵상과 영성관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재정사용, 내적 치유 등의 강의가 있으며 찬양과 소그룹모임과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맛보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의 삶을 살도록 한다. 2003년 3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14주간 매주 수요일 11시 - 15시까지 50주년 기념관 402호에서 진행 된다.

2) 선교제자훈련 (MP)

가. 개요

그동안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던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종합 정리하여 선교의 전 영역을 체계적

으로 공부하고 또 막연한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선교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여 선교지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년부터 총회 단기 선교사 파송 위탁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 훈련내용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 및 기본적 영성훈련의 기반 위에서 고찰한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들과 타 문화권 선교, 전문인선교, 직업선교, 전시생활방식의 원리와 선교동원 등 다양한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주간 매주 화요일 18시 20분 - 22시 30분까지 50주년 기념관 405호에서 진행된다.

3) 선교현장영어(MFE)

가. 개요

전 세계가 영어학습에 열의를 내고 있다. 영어능력을 배양하여 하나님 말씀 전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선교에 헌신코자 하는 선교 헌신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단기선교사로 파송하거나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과 깊이 교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학사운영

2년 4학기제로 학기별 소정의 사정을 통한 수료증이 발급되며 본교회 선교부 단기 선교사 파송 필수 훈련과정으로 한 학기 이상의 수료증이 요구된다. 2003년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주간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50주년기념관 지하 2층 200-2호에서 진행된다.

4) 선교제자단

가. 개요

기초영성훈련, 선교제자훈련, 선교현장영어증 하나 이상 수료한 사람들과 선교헌신자들 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을 제공하여 많은 수의 단기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배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활동내용

선교세미나, 개인별 선교비전 및 훈련상황파악과 방향제시, 선교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은사별 지역별 동아리 활동, 선교비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및 지원 등을 한다. 2003년 2월 11일부터 모임을 시작하고 매월 두 번째 주 지난 화요일 19시 50주년 기념관 지하 2층 200-3호에서 모임이 있다.

5) 선교전문교사(MST)

가. 개요

선교자원 즉 선교의 인적, 물적 Knowhow적인 자원을 동력화시켜 세계선교의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동역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연합과 섬김을 배우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동력화함으로 영적·양적 부흥을 일으키며 세계선교를 위한 더 많은 선교 관심자를

일으키는 전문적인 영역을 배우는 과정이다.

나. 훈련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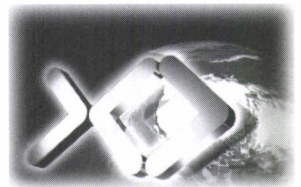
선교동원의 성경적 기초, 선교동원의 역사,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선교상담과 인간관계훈련, 21세기 선교동원가의 역할과 자질, 영성, 리더십, 설교(Preaching)와 교수(Teaching) 기법 등.

5. 마치는 글

영락 선교제자훈련학교의 모든 훈련과정은 선교의 이론과 실재를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예수그리스도는 우리 자신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행26:18)”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따라서 그저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라는 부름에 응하며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사단의 일을 폐하라는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이러한 훈련과정을 가짐으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선교제자들이 되리라 생각한다.

만남





한규영 목사
(사회부, 성동·광진교구)

인생역전? 심심하지나 않으면!

'로또 대박' 인생 쪽박

요즘 로또 때문에 나라안이 소란하다. 선전부터 요란해서 남녀가 나와서 마구 소리치르고 몸을 흔들어 댈다. 정신 사납다. 도대체 인생 역전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로또에 당첨돼서 저택사고, 고급 차 사고, 가지고 싶은 것 다가지게 되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인가? 하긴 가난하기 때문에 박탈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이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진다고 역전이 될 수 없고,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인생은 돈으로 역전될 수 없다. 돈(욕심) 때문에 쪽박 찬 사람은 많이 봤어도 돈 많이 벌었다고 인생 대박 터진 사람 못 봤다. 돈 가지면 절로 사랑 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막연히 믿는 것이 무지이고 타락한 본성의 결과이다.

오늘도 이유 없이 돈타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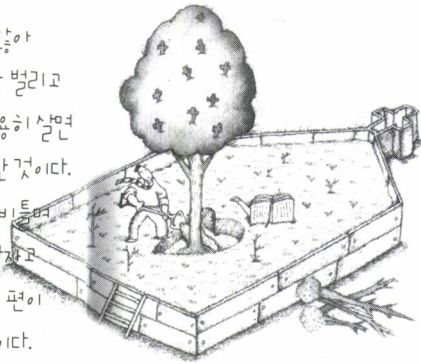
돈독이 누렇게 들어 가지고 밤길을 헤매고 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로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돈이 인생을 역전시켜준다고 선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

가난한 자에게 메기는 희망이라는 세금?

누군가가 복권을 사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에 대한 '희망세'라고 한다. 참으로 명료한 말이다. 삶이 고단하고 거기다가 지루하고 내일의 변화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현대인들이 거저 내일을 꿈꾸는 하나의 작은 매개체가 된다면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꿈꿀만한 내일이 없단 말인가? 지금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본다. 그런 자유아래서 변화를 꿈꾸는 것을 게을리하고 단순히 로또를 의지해야 하겠는가? 내일은

심심하지 않아
 쓸데없는 일 안 벌리고
 죄짓지 않고 조용히 살면
 과분하게 행복한 것이다.
 심심해서 몸 비틀며
 인생역전 하자고
 덤비지 않는 편이
 행복한 것이다.



무엇이고 희망은 무엇인가? 결국은 삶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다. 소유도 생명을 위한 수단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다.

소유를 위하여 사랑을 팔고, 건강을 저당 잡히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친구를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혼란이 문제다. 생명을 꿈꾸고 사랑을 희망하면 소박한 가정의 따뜻함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 넘치는 삶이고 역전 할 필요도 없고 역전 당할 염려도 없는 삶이다.

역전시킬 인생? 심심하지나 말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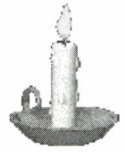
인생 역전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사는 길을 찾으려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역전 당한 인생도 없고 역전 할 대상도 없다. 사람이 심심하니깐 자꾸 귀찮고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저 살면 은혜의 삶인 줄 믿는다. 조금은 심심한 듯 해도 하나님 믿고 좀 조용히 살 수 있으면 절로 행복하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미 낱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창 25:23 참조).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 채 어머니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탈취하고자 역전 극을 꾸며다(창 27:1~10 참조). 그리고 역전은커녕 반역전 당해서 형 에서

를 피해 고향을 등지게 된다. 멀리 쫓겨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교활한 삼촌에게 한번 인생역전 해보려고 덤비다가 다시 도망자가 된다. 마지막에 야곱은 역전시킬 인생의 자투리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가 최후에 한 일은 하나님에게 매달려 본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야곱이 얻은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정하신 그 은혜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창 32장 참조).

행복한 집이라고 유별나게 떠드는 사람치고 행복은 고사하고 조용한 집도 아닌 경우가 많다. 남편 사랑 심하게 하는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다고 난리다. 사실은 자신의 불행을 감추기 위한 절규였다나? 아침저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 봐야 이미 이혼율이 33%가 넘는 세상이다(이점에서는 선진국 수준임). 그저 아무 말 안하고 살아도 된장만 잘 끓여 먹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새 일평생을 잘 살아왔다.

우리가 은혜 아래 좀 조용히 사는 법을 터득하면 참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역전할 인생 없어도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다. 심심하지 않아 쓸데없는 일 안 벌리고 죄짓지 않고 조용히 살면 과분하게 행복한 것이다. 심심해서 몸 비틀며 인생역전 하자고 덤비지 않는 편이 행복한 것이다. **안남**



복음으로 리더 양성을 돕는 '등대회'



▲교회 뜰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등대회 임원들(맨 뒷줄 가운데가 회장 백금옥 권사).

디즈니가 자기의 딸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 구상하게 되었다는 디즈니랜드..., 그래서 일까, 디즈니가 그때 꾸었던 그 꿈은 지금도 살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주는 세계 제1의 명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회의 '등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비전을 가꾸어 가는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을 비추어 삶을 가꾸게 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비추어 주는 곳...

'등대회' 모임은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 땅의 비전을 밝히는 리더로 양성하는 취지에서 착안한 소모임이다. 이 모임이 결성된 것은 1981년. 나라 살리기 일환으로 대학 선교를 위해 이 땅의 미래를 밝히려는 의미로 '등대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영락교회의 서울대학교 선교 모임이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이다.

그때 이 일을 맡게 된 이는 바로 백금옥 권사. 백 권사가 이 일을 맡았을 때 남편인 김치선 장로(소천)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임 중이었다. 덕분에 첫 예배를 서울대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수회관

언젠가 이런 에피소드를 글에서 읽은 적이 있다.

미국 올랜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꿈의 동산 '디즈니월드'가 만들어 졌을 때 디즈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때 개막식에 참석했던 한 인사가 축사를 통해 '그가 살아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단상을 내려왔다. 다음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던 임원 중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축사 감사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디즈니씨는 이미 오래 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에서 드릴 수 있었다. 그 후 등대회 회원들은 전도부 이용우 목사님을 모시고 캠퍼스 전도를 전담, 전도지를 들고 직접 관악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자 캠퍼스 근처에 교회 개척이 시급하게 되었다. 당시 필요한 전세금은 1,500만원이었다. 이에 백금옥 권사는 교회 건물 구입의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역설하고 중지를 모아 그 자리에서 정확히 1,5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1983년 6월엔 서울대 근처에 '등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 후 등대회는 점점 활성화되었고 나중엔 회원이 300여명까지 늘어났다. 평소엔 캠퍼스 전도를, 한 달에 두 번씩 주말에는 음식을 준비하여 교회로 가 학생들과 교제를 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당시 학생 중에는 지방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고 권사님들이 손수 정성껏 마련해간 음식들은 그들에게 음식 이전에 따스한 예수 사랑의 체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모임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결신자도 늘어갔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다. 1990년 초, 이제는 교회 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건축을 위해 등대회 회원뿐 아니라 당시 여전도회 회장을 맡고 있던 공정인 권사를 비롯, 김안순 권사, 정용려 권사가 등대교회를 위한 기도원 부지 지원에 적극 협력하여 1996년 마침내 서울대 캠퍼스 근처인 신림동에 총 4억여원을 들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등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 안에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위한 방도 하나 마련했다. 학생들의 영적 육적 보급자리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했다. 그뿐 아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설악산, 대성리, 제주도 등에서 학생들의 수련회를 갖는가 하면 어느 해는 한

국을 방문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재미교포 학생들과 연결, 함께 전국을 돌며 전도와 나라 비전에 대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등대회가 시작된지 어언 22년, 당시 4, 50대였던 회원들은 이제 대부분 파뿌리의 은퇴 권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 사랑 열정이나 이 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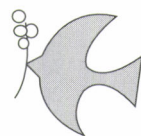
등대회 회장은 백금옥 권사가 계속 맡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 만류로 그대로 맡고 있다. 등대회의 사랑을 받은 학생 중에는 교수가 된 이도 적지 않고 판검사가 된 이도 적지 않다.

80년대 중반 당시 우리나라 대학가엔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그 즈음 데모에 가담했던 학생 두 명이 도망치다 교회로 숨어들었다. 당시 교회를 맡고 있던 서성환 목사님은 이들을 숨겨주며 함께 끌어안고 기도했다. 그 후 신앙 생활을 하게 된 이들은 방황의 늪에서 헤어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 큰 형은 유학을, 동생은 KAIST로 진학했다. 졸업하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던 그때의 학생들이 교회를 헌당할 때 등대회 회원들과 모두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회포를 풀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지금도 등대회는 등대교회를 직접 돕는 일 외에 목사님(현재 김길동 목사)신수비와 황창선 선교사 생활비(영국 선교사) 일부 지급, 그리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등을 돕고 있다.

격월로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 등대회, 기도와 후원으로 이 땅의 미래를 밝히는 그들의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남**

〈취재/인미기자〉



은총입은 사람들



신기도 목사
(목양부, 영락공원묘원 이사)

검은 대륙 광야를 달리는 누우떼처럼

인간은 탁월하고 독특하다. 그러나 지·정·성의 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밀림에서 날개 없이 거니는 한계적 존재이다. 그 중에서도 죽음은 결정적 한계다. 죄의 결과는 생명을 시나브로 꺼가며 인간을 전쟁과 죽음의 광야로 몰아낸다.

보라 저 살기 위한 전쟁사를 펼치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모순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전쟁연구가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5500년 동안 14531건의 전쟁이 발발되어 평균 1년에 2차례의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전쟁비용이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주전 54년에는 75센트가 소비되

었고, 나폴레옹 당시에는 3천불(200만원)이 소비되었단다. 1차 대전 때에는 2만천불이 소비되었고, 2차 대전 때에는 20만불(1억3천만원)이 소비되었다고 한다. 언젠가 3차 대전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100만불(6억8천만원)이 소비 될 것이란다. 죄로 출현된 고통과 전쟁과 죽음의 행렬에서 슬픔과 장사문화가 나오고 인간은 죄의 문화에 기속하여 하마 하마 숨가쁘게 호흡한다.

기회의 창문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인간이 죄로 만들어낸 참혹한 문화의 극단은 죽음이다.

인간사에서 죽음은 한계적 인간에게 최고의 문화 위기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된 부활을 믿고 영원에 잇대어진 사람들이다. 영생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력이 좋다. 주검을 볼 때 “믿음을 연단 시키는 최대의 기회”로 본다. 죽음을 볼 때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끝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시작으로 본다. 그들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중국어야 온전히 드러날 신비를 기다린다. 세상의 레퀴임에 귀기울이지 않고 천상의 노래를 듣는다. 영원에 잇대어진 믿음의 눈망울은 수렁 속에서도 흑진주처럼 빛난다. 오늘을 영롱하게 사는 힘은 새 생명 안에서 솟아나고 그 힘은

두려움 없는 지극한 성스러움으로 매일 초대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1:3-4)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보다는 가시적 형식에서 죽음의 의미를 부각하려 한 경향이 크다. 경외심의 가시적 표현을 형식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무덤의 크기가 영혼의 무게이거나 선영(先塋)의 화려함이 조상을 위한 훈장이 될 수는 없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요 후손들의 문제로 매장문화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 “묘지동산”이 될 지경이다. 땅이 넓은 나라에서도 합리적인 방법들이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좁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여의도면적의 12배 해당되는 약 9km²가 묘지 화되어 간다고 한다.

죽어 묻힌 땅이 과연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되는가 오히려 염려스러운 땅이 되는가.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 땅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산자의 땅이다. 인류유산도 후세를 위한 적절한 유익으로 남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터를 지키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장묘 문화가 다르다. 어느 산(山)나라에선 죽은 시신을 산 계곡 물 속에 수장(水葬)하기도 하고, 티벳에서는 시신을 절단 내어 바위 위에 뿌려 새들이 먹게 하여 조장(鳥葬)

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어느 부족은 숲 속에 얹혀두기도 한다. 힌두교인들은 화장하여 갠지스 강물에 재로 뿌려지길 갈망한다. 모두 가변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선 화장과 매장을 주로 하고 있다. 재래 장묘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다. 병원마다 장례식장을 개조하느라 공사 중이다. 화장장이 넘쳐 화장터를 더 건립하려고 고심중이다. 납골묘원이나 납골당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묘지도 분양되고 있다. 땅은 좁고 땅값은 오른다. 장례비용이 만만찮다. 시대는 바빠지고 관리가 어렵다. 법적으로 집단묘지의 분묘 사용기간도 기본 15년으로 하고 있다.

연장을 허가하되 최장 60년까지 매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화장하거나 납골 시설에 안치 해야한다고 한다.

변화의 물결

시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죽는다. 무엇인가 필요하다. 옛 방법의 고수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까? 장묘문화의 성서적이고도 선도적 역할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바뀌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다. 생명존중이 일어나는 가치의 틀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다양한 자율성과 수직적 정신문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현실적 가치와 신 경제 논리로 생명경시풍조를 야기 해서도 안 된다. 신앙의 훈훈한 바람과 지혜의 물결이 흘러야 한다. 영락동산에 창조적 문화가 꽃피려면 모든 성도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정관념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신앙의식을 넓혀야 한다. 그 때에 봄 동산의 교향악은 연거푸 울려 퍼질 것이다. **안남**

이만용 목사와 함께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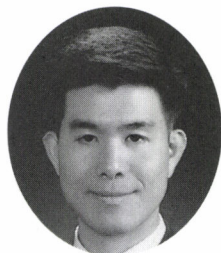
‘성경통독 사경회’

본서의 저자 이만용 목사님은 성경통독사경회에 특별한 소명과 은사를 받아 지금까지 십 수 차례에 걸쳐서 본 교회 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도 초청되어 이 분야의 강사로 잘 알려진 분이다. 저자가 본서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성경통독사경회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들을 수 있다.

79세 되신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통독에 참석하신 것도 대단한데 그 설명을 일일이 다 노트로 받아 적어, 두고두고 성경연구에 참고한다는 간증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한 다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결심을 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직접 읽으면서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하였다는 간증도 있다.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한다.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성경통독사경회를 이끌면서 언제나 첫 시간을 성경통독사경회의 원리와 유익을 설명하는데 할애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며, 기독교적 역사관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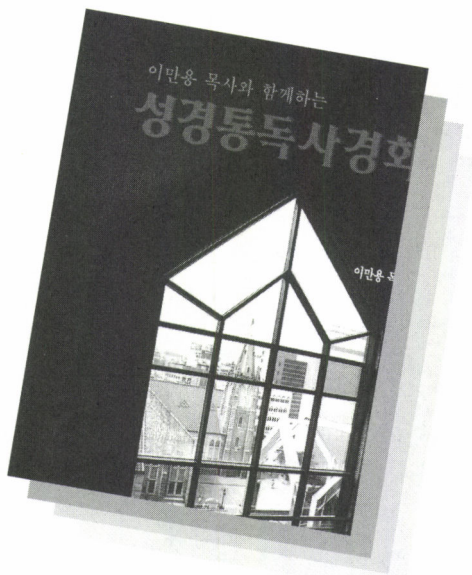


오철훈 목사
(사랑부·장년부·
노인대학,
관악·동작교구)

립하게 되고, 교회가 무엇이며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통독함으로 분명한 성경의 맥을 잡게 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참 신앙의 길을 견도록 결단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저자가 이끄는 성경통독사경회의 또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성경을 볼 때 시대 순으로 재배열해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각 권을 설명하면서 먼저 개론적인 책의 특징을 서론적으로 설명한 다음 내용을 자세히 쪼개어서 분해하고, 각 권의 특징들을 때로는 인물 중심으로, 때로는 절기 중심으로, 때로는 도표로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지도로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성경연구에 매우 유익한 참고자료가 된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 이후 신약 시대까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신구약 중간시대(400년간)를 영적 암흑기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신약에는 사복음서 대조비교표와 사도바울의 세 번에 걸친 선교여행과 로마까지 여정을 지도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저자는 그 동안 계시록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성경적인 해석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게 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본서를 소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먹어야 한다. 특별히 신구약 66권의 두루마리를 삼켜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귀중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통독사경회라고 믿는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다.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 **안남**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교육부에서는 교사양성반(제42기)을 통해 2004년도에 충원이 필요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2003년 3월~6월 / 9월~11월

매주일 08:30~11:00

▶교육장소

50주년기념관 503호실

▶교육내용

신구약 성경의 개관, 말씀묵상훈련, 학생상담, 예배, 가정에 대한 이해, 학습자 이해, 반 목회, 성서학습 방법 등

▶부서별 모집인원

사랑부 : 10명

영아·유아·유치부 : 30명(각 10명)

유년·초등·소년부 : 60명(각 20명)

중·고등부 : 20명(각 10명)

대학·청년부 : 약간명

▶신청기간 및 장소

2003. 2. 2 ~ 2. 23 (평일에도 접수가능)

50주년기념관 605호

문의] : 이진희 간사

(☎ 2273-6301 교환160번)

교우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정성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학부, 청년부 젊은 이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교사교육부 -

열기로 가득 찼던 '성경통독사경회'



교계 전체에 분이 되어 오고 있는 우리교회 올해 첫 성경통독사경회가 지난 1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6일 동안 50주년 기념관 503호실에서 진행되었다.

매일 06시부터 밤 10시까지 실시된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모두 200여명이 참석하여 끝나는 시간까지 성경의 이해와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맛'을 느끼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이어졌다.

1998년부터 매년 수회씩 담당 목사(이만용 목사)의 지도와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진행해 온 이 행사는 현재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성경통독 자원봉사팀'(팀장 정영주 집사)의 봉사 덕분에 1주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이 성경통독사경회는 담당 목사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은사 받은 목회자가 낭독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들으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 등 성경 읽기에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도 지루함이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부임이래 계속 이 사경회를 지도해 오면서 자신의 지도 사역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성경통독사경회'라는 저서까지 펴낸 이만용 목사는 "성경 통독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통독 과정 속에서의 기쁨과 성경통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금년 두 번째 예정인 6월 30일부터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통독사경회를 마친 마지막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인 완주자들> **안남**



심신복 전도사
(북한선교센터, 강동·송파교구)

추억 속 삶보다 더 좋은 현실의 삶

추억,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이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종착점을 어디에다 어떻게 찍겠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토대로 된다.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는 논리로 볼 때 추억이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더욱이 이념과 제도, 사상과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유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없이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산혁명 필승'에 바친 50년 인생

나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원군 화진리(한천)이다. 그곳에서 1950년 2월7일 태어났으며 어머니 등에서 전쟁의 포화를 체험했다. 비록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만 세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 인지되었던 엄혹한 나날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전쟁의 포화와 함께 이 세상에 울음을 터친 나, 공산주의 혁명위업의 필승을 위하여 50여년간 바친 나,

반세기에 걸치는 잊을 수 없는 가지가지 사연들을 오늘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세상을 보고 판단 분석할 수 있었던 세계관 형성과 오늘과 같이 참된 인생의 정로에 들어설 수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적으려 한다.

나의 세계관 형성은 군대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원래 김일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혁명적 세계관은 인식하고 증오하고 각오하는 세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고 가르쳐왔으며, 바로 그것이나의 세계관 형성의 지침이었다. 나는 전쟁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년시절부터 군복 입은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했다. 그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었지만, 크기만 하면 무조건 군인이 되고, 또 군인이 되면 군관(장교)이 되고, 군관(장교)이 되면 일생을 어깨에서 별(계급)을 내리지 않고 일생을 총화 하려고 하였던 것이 유년시의 꿈이었다.

나는 그런 나의 꿈처럼 1968년 3월27일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기심과 내 기질로부터

생각했던 군대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노동당에서 가르친 대로 전투 정치훈련과 조직생활에 충실했으며, 그 과정에 혁명이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내가 싸워야 할 적과 점령해야 할 땅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내가 군복 입은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특히 김일성과 함께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다는 항일 빨치산들과 6.25전쟁시 남녘 땅 해방을 위해 용감히 싸웠다고 하는 영웅들의 산 투쟁모습은 나를 흥분시켰고, 나도 그렇게 싸우고 싶었고 또 그렇게 죽고 싶었으며 조국의 청사에 그렇게 남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군인으로서의 삶만이 이 세상 가장 참다운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진리의 길을 찾은 행복

이때부터 나는 고속 승진과 함께 북한 땅 안에서 누려할 영광과 영예는 모두 받아 안게 되었다. 조선 노동당 입당과 함께 정치 군관(장교)학교 대학 중대로부터 대대 연대 여단 사령부에서 그것도 북한군 안에서 제일 힘이 있다고 하는 정치일꾼 조직일꾼으로서만 근무하게 되었고, 김일성과 같이 사진까지 촬영하는 기회도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다고 추억하고 싶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좋은 삶의 시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추억이 아니라 순간 순간을 그대로 기록하고 싶다. 공산주의 혁명시절에는 몰라서 보람찬 생활을 했고, 지금은 참으로 알아서 보

람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북한의 철학자들은 '진리'란 인식된 필연으로서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이론만이 진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에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바로 그렇다 나는 그들이 배워준 철학과 주체사상을 가지고 북한의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욱이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실천이라고 볼 때 공산주의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조직사상 생활에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편 허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진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답답하고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가 진리가 아니라면 자본주의는 진리란 말인가? 나는 살아보지 못한 자본주의였지만 교육을 통하여 자본주의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나는 북한의 최고 영도자 김정일은 영도자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는 애국자도 아니며, 혁명가도 아니며,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군사를 잘 아는 최고 사령관도 아니다. 경제는 더욱 모르며, 자애와 인간에는 조금도 없는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독재 통치자이다. 이것이 내 머리 속에 논리적으로 자리잡게 되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 올랐다. 바로 이러한 때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이제 와서 이 세상 진리는 공산주의도 아니며 자본주의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주의만이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나는 이 길을 찾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 인간이란 원래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이 땅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며,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창조의 본성적 요구이며, 창조자의 원리이며, 창조자의 명령이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모자라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은사를 새로 개발해서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를 먼저 체험하게 하여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진리의 인생 정로에서 한 평생을 충화 지을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나는 오래 살아도 좋고 짧게 살아도 좋다. 다만 진리만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것이 남은 인생의 과제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날 추억이 없었더라면 바로 결정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억에 대한 정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여, 진리를 찾기 전에는 추억을 정의하지 말라, 왜?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안남**

〈전 북한군 정치장교 중좌(중령)〉

제3기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

호스피스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경과 신뢰와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위로해 드리는 아름다운 봉사프로그램입니다.

1. 호스피스교육 일정

① 이론교육 :

4월 1일(화), 4일(금), 8일(화), 11일(금), 15일(화), 18일(금), 22일(화), 25일(금)
(총8회 24시간)

강의시간 : 오후2시-5시

② 기초임상훈련 : 4월 23일- 5월 21일
훈련시간: 낮(10시-3시30분)두번,
또는 밤(오후5시-익일오전8시30분)
한번 중 택일
(총 20시간, 용인 샘물의 집)

2 강 사 : 원 주 희 목사(샘물호스피스
원장, 전 호스피스협회회장)

3 교육장소 : 50주년기념관 503호실

4 교 육 비 : 3 만원 (구비서류: 사진1장)

5 신 청 : 3월2 - 4월1일
주 일 : 봉사관앞 마당
평 일 : 동별관 자원봉사사무실
(교환181번)

항존직 선거에 즈음하여



우리 교회를 섬길 항존직(장로 12명, 안수집사 24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3월 2일, 16일, 23일 3차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이 투표에서 장로후보자는 투표참가자의 2/3이상, 안수집사는 투표참가자의 1/2이상을 득표하여야 선출됩니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봉사관 1층에서 실시되므로 5부 예배전에는 투표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각 구역장을 통하여 교부하여 드린 투표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만약 투표통지서를 받지 않았거나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교적확인을 받아 투표에 참가하실 수 있으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표자격은 만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며, 우리 교회의 전산교적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류철에 있거나 과거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실이 있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항존직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출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이므로 홍보가 부족하여 항존직 후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교구 제직, 친분 있는 사람, 부탁받은 후보 등에만 집착하여 한 두 후보만을 기표하는 투표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지지하는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기표하면 지지하는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낙선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투표자도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직 투표는 다수득표가 아니므로 이처럼 생각하는 투표자가 많을수록 당선득표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당선자가 극소수에 그치게 됩니다.

선거관리실무위원회에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투표에 모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어쩌랴' 하면서 불참하게 되면 선거결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기표할 후보자를 미리 마음에 정하여야 합니다. 평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공보자료, 교회요람, 만남지, 게시판 등 자료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차 투표시에는 정확한 이름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교구 또는 가족이름 등을 같이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 투표장에 나와 후보 한 두 분만 기표하게 됩니다.

끝으로 항존직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모두 협력하여야 합니다. 공식석상의 기도시간에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안내서 외에 개인적인 쪽지를 돌리는 등의 방법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거기간중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개인선전, 기부나 접대행위,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 등 또한 각종 행위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로 선출된 분들은 경건한 생활로서 모범을 보일 것이며,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이 보이거나, 염려되는 부분은 교회치리 차원에서 다루게 됨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위해 일할 믿음, 지혜,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실무위원회-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향존직 선거(1948-2002)의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공 예 속 장로
(선거관리실무위원장)

1. 통계적 분석의 요약

우리교회의 향존직 선거의 역사는 교회가 설립된지 3년 후인 1948년 4월과 6월에 각각 12명씩의 장로를 세움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 후 54년이 지난 2002년 3월까지 총 205명(정원 446명)의 장로와 362명(정원 680명)의 안수집사가 선출되었다. 연도별 장로 및 안수집사의 선거결과는 각각 표1, 2와 같다. 한편 표3, 4와 같이 최근 10년동안(1992년~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평균 등록세례교인 23,000여명 중 14.6%에 해당되는 3,381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장로 선거 결과(1948년~2002년)

년 도	'48	'48	'54	'56	'58	'61	'64	'68	'70	'75	'76	'77	'78	'79	'80	'81	'82	소계	총계
정 원	12	12	12	7	12	12	12	12	15	20	12	20	12	12	12	12	12	218	
당선자	12	12	8	1	10	11	6	6	8	2	8	10	2	7	9	1	8	121	
당선율	100	100	67	14	83	92	50	50	53	10	67	50	17	58	75	8	67	56	
년 도	'83	'86	'87	'88	'89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정 원	12	12	12	24	24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228	446
당선자	6	3	7	9	2	5	6	6	6	5	6	6	6	5	4	0	2	84	205
당선율	67	25	58	38	8	42	50	50	50	42	50	50	50	42	33	0	17	39	47

<표 2> 연도별 안수집사 선거 결과(1956년~2002년)

년 도	'56	'59	'61	'63	'65	'68	'70	'74	'75	'76	'78	'79	'80	'81	'83	'86	소계	총계
정 원	12	12	38	20	20	20	20	20	20	20	24	20	20	24	24	24	338	
당선자	6	8	16	15	11	16	10	8	14	14	14	15	14	17	10	10	198	
당선율	50	67	42	75	55	80	50	40	07	70	58	75	07	71	42	42	59	
년 도	'87	'88	'89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정 원	24	24	12	12	30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342	680
당선자	10	14	10	7	16	14	8	8	8	12	8	10	20	0	19		164	362
당선율	42	58	83	58	53	58	33	33	33	50	33	42	83	0	79		49	53

2 최근 10년의 선거결과 분석

표3, 4는 최근 10년 동안의 장로와 안수집사 선거 결과를 선거차수에 따라서 분석한 것이다.

<표 3> 최근 10년간 장로 선거 결과(1992년~2002년)

		년 도											비 고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1차 투 표	정 원	12	24	12	12	12	12	12	12	12	-	12	132
	유권자	21,298	22,042	22,795	22,601	22,733	23,396	23,416	23,246	27,864	-	27,649	23,704
	투표자	3,025	3,532	3,049	3,901	3,089	3,303	3,313	2,597	5,372	-	6,072	3,725
	투표율(%)	14	16	13	17	14	14	14	11	19	-	22	15.7
	당선자	0	0	0	0	0	0	0	0	0	-	0	0
2차 투 표	정 원	12	24	12	12	12	12	12	12	12	-	12	132
	투표자	3,309	2,853	3,345	3,495	3,441	3,796	3,679	2,811	5,239	-	5,341	3,730
	당선자	3	2	1	0	3	2	3	3	0	-	1	18
3차 투 표	정 원	9	22	11	12	9	10	9	9	12	-	11	114
	투표자	2,710	2,385	3,232	3,032	3,156	3,156	3,134	2,596	5,082	-	4,551	2,987
	당선자	4	4	5	5	3	4	3	2	4	-	1	35
계		7	6	6	5	6	6	6	5	4	-	2	53
당선율(%)		58	25	50	42	50	50	50	42	33	-	16.7	40

<표 4> 최근 10년 안수집사 선거 결과(1992년~2002년)

		년 도											비 고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1차 투 표	정 원	30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70
	유권자	21,298	22,042	22,795	22,601	22,733	23,396	23,416	23,246	27,864	-	27,649	23,704
	투표자	3,132	3,046	3,257	2,986	3,148	3,229	3,374	3,454	5,515	-	6,511	3,765
	투표율(%)	14.7	13.8	14.3	13.2	13.8	13.8	14.4	14.9	18	-	23.5	15.9
	당선자	0	0	0	0	0	0	0	0	2	-	0	2
2차 투 표	정 원	30	24	24	24	24	24	24	24	22	-	24	270
	투표자	3,432	3,518	3,678	3,244	3,482	3,859	3,773	3,619	5,281	-	5,348	3,923
	당선자	0	1	1	8	2	2	1	4	6	-	9	34
3차 투 표	정 원	30	23	23	16	22	22	23	20	16	-	15	236
	투표자	3,114	2,878	2,640	2,821	2,930	3,661	3,186	3,127	5,082	-	4,697	3,413
	당선자	16	13	7	0	6	10	7	6	12	-	10	87
계		16	14	8	8	8	12	8	10	20	-	19	123
당선율(%)		53	58	33	33	33	50	33	42	83	-	79	45.6

3. 평가 및 고찰

- (1) 1948년 4월과 6월에 각각 12명씩 24명의 항존직 장로 선출이 이루어진 후부터 2002년 3월까지 54년동안 205명(정원 446명)의 장로가 선출되었으며 당선율은 45.9%로 과반수에도 못 미친다.
- (2) 최근 10년(1992년~2002년) 동안의 장로선거에서는 56명(정원 132명)이 선출되었으며 당선율은 40.2% 로서 평균 당선율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 (3) 한편 지난 1992년부터 2002년 3월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안수집사 선거에서 123명(정원 270명)이 당선되어, 평균 당선율은 45.6%에 이르렀다.

교회 항존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등록 세례교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세례(입교)교인의 수는 항존직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또한 이들이 항존직 선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교회 등록 세례(입교)교인수는 평균적으로 23,704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5.7%에 해당하는 3,725명이 장로와 안수집사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현재 시무장로 1명이 당회, 제직부서 및 각종 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적어도 평균 3~4개 기관에 책임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회행정장정에 따라 '인1부서봉사원칙'을 지키려면 최소한도 현재의 시무장로 43명(휴무장로 포함)의 3~4배에 해당하는 129명~172명선은 항상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계산법으로는 총회 헌법규정에 의해서도 세례교인 30명 이상이면 당회를 구성하여 2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세례교인 30명 증원에 따라 장로 1명씩 추가로 증원할 수 있으므로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등록 세례교인수가 23,704명에 이르는 우리교회로서는 최소한 $23,704 \times 15.7\% (\text{투표참여율}) \times 1/30 = 124$ 명의 장로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무장로 43명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도 81명의 장로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2002년의 경우, 등록세례교인수가 $27,649 \times 21.9\% (\text{투표참여율}) \times 1/30 = 201.8$ 명으로 현재의 시무장로 43명을 고려하더라도 158명의 장로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5) 안수집사의 경우도 장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안수집사 110명(휴무안수집사포함)이 각 제직부서 및 위원회 등 3~4개 부서와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략적으로도 330명-440명이 필요하며, 계산상으로는 $27,649 \times 23.5\% (\text{투표참여율}) \times 1/30 = 216.5$ 명이 되어, 현재의 110명을 고려하더라도 100명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지난 10년동안 영락교회의 항존직 선거에서 장로의 총정원은 132명이었다. 이것은 영락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132명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 10년동안 1차 투표에서 당선된 사례는 한번도 없었으며, 2차 투표에서 18명(13.6%), 3차 투표에서 35명(26.5%) 등 총53명이 당선되어, 평균 당선율은 40%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시무장로의 수가 43명인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상의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우리교회의 정상적인 목회활동과 지속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시무장로의 최소인원은 124명, 최대인원은 201명, 안수집사의 최소인원은 217명, 최대인원은 350여명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안수집사의 수는 11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3년도 항존직 선거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께서 이러한 우리교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로 12명과 안수집사 24명이 모두 선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안남**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교단 노회장단 우리교회 방문



인도네시아 슬라웨시(Sulawesi)의 미나하사 복음주의 교단 노회장단 목사 23명(남 16명, 여 7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2월 16일(주일)에는 우리교회에서 3부 예배에 참석했다.

785개 교회에 목회자가 1,419명이나 되는 이 노회 교단의 회장단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 것은 용천노회 세계선교부의 초청과 신성교회(이희수 목사)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교회의 성장을 배

우기 위해 2월 16일부터 약 1주일 예정으로 국내 주요 교회와 신학대학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공: 외국인 안내부 / 사진은 3부 예배를 마친 후 외국인 안내부 요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 방문단 일행>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 헌신예배

2월 9일(주일) 찬양예배는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AMCF : The Association o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헌신예배로 드러졌다.

본당 좌석이 가득 찬 가운데 드러진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손창문 목사(AMCF 전임목사)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라는 설교를 통해 현재 1,000여 개의 군인교회 중 3분의 1 이상을 영락교회가 설립,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AMCF는 1851년 인도에 파견된 영국 군인의 기도모임에서 시작되어 현재 12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간 주로 서양사람들이 회장직을 맡아 왔으나 2002년 9월부터 이필섭 장로(육군대장 예편)가 10년 임기의 세계 AMCF 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영락교회 기독교장교회의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 OCU는 1998년 MCF로 재편됨).

제15기 교회음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교회음악의 이해와 찬양대원 양성을 위한 수
강생 모집(타교회 교인 포함)

수강일정 : 2월 23일(주일)부터
6월 8일(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수강료 : 3만원

접 수 : 2월 23일(주일)까지,

문 의 : 음악부(직통 ☎2273-6318,
교환:2273-6301 171, 172번)

노인대학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기간 : 2월 26일(수)까지
문의 및 접수 : 박진석 전도사
(HP 019-9164-1331, ☎2273-6301 교환113번)

제출서류 : 지원서(교구목사 추천 포함),
세대 교적카드(지원서는 개별수령)

모집인원 :
1. 교사 - 약간명(만55세 미만, 집사/권사)
2. 자원봉사자 - 국악지도 1명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1. 제17기 평신도 상담교육

1) 교육 목적 : 상담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의 계속교육과 가족관계, 신앙상
담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음

2) 과목 및 강사

일자	교육명	강사
2/23	개강 예배·관계 훈련	김 휘 현 목 사 이 현 숙 전도사
3/2	인 간 발 달	사 미 자 교 수
3/9	성격과 신앙	사 미 자 교 수
3/16	이 상 심 리	김 이 영 교 수
3/23	인간이해와 언어	김 종 혁 교 수
3/30	자연환경과 인간	장 도 곤 교 수
4/6	상 담 이 론	한 재 희 교 수
4/13	말하기와 듣기	채 규 만 교 수
4/20	가정과 상담	이 현 숙 전도사
4/27	호 스 피 스	최 화 숙 교 수
5/4	성숙한 노년	주 선 애 교 수
5/18	성경과 상담	김 진 영 교 수
5/25	영성과 상담	유 해 룡 교 수
6/1	목회와 상담	김 휘 현 목 사
6/7~8	상담캠프 : 심리검사(MBTI, MMPI) · 종합평가·종강예배	김 휘 현 목 사 권 오 국 전도사 이 현 숙 전도사

3) 일시 : 2/23 - 6/8 (주일) 오후 2시~ 4시 30분

4) 장소 : 한경직목사기념관 4층
(6/7~8 : 영락기도원)

5) 문의 : 상담부
(봉사관 3층, ☎2273-6301 교환 179·180번)

‘축하’ 속에 드린 권사회 헌신예배



2월 16일(주일) 찬양예배는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서는 말씀에 이어 금년 새로 임명된 165명의 신입 권사님들의 서약과 환영사, 답사, 권사회 찬양대의 특송 등의 순서가 있었으며, 신입 권사님들 모두가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참석하여 예배 분위기를 더욱 밝게 했다. 말씀 순서에서 이만용 목사는 ‘함께 하는 삶’이란 주제로 “신입 권사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 다 함께 즐거워하는 지체가 되자”고 말했다. <사진은 한복차림으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 신입 권사님들>

안내

선교부 문화사역팀 샤론발레단 전문인 오디션

일시 및 장소 : 2월 25일(화) 오후 5시, 벨엘 B실

대상 : 전문 무용수/ 스텝(일반인도 가능)

*일반 초보자 신설(나이제한 없음)

연락처 : 문화선교팀 사무실

(☎2273-6301 교환 168번,

샤론발레단 016-660-1091)

화요 전도폭발훈련

일시 및 장소 : 3월 4일(화)~6월 3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50주년기념관 3~5층

신청 : 각 교구별로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 2월 24일(월)부터 3월 1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

장소 : 본당

직장인 토요 전도폭발훈련

일 시 : 3월 8일(토)~6월 7일(토)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장 소 : 50주년기념관 지하 200-2호

면 접 : 2월 22일(토) 오후 6시 30분,

50주년기념관 지하 200-2호실

접수 및 문의 : 선교부 조비아 간사

(☎2273-6301 교환 166번)

최경오 집사 (HP 016-798-1893)

아가세(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세미나

주제 :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1강 - 행복한 자녀로 키워라

(강사 : 이기복 교수)

2강 - 쓴 뿌리를 캐어내면 사랑이 커진다

(강사 : 송길원 교수)

3강 -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사 : 홍일권 교수)

4강 - 내 아이 왜 이럴까?

(강사 변영인 교수)

일시 : 2월 18일(주일)부터 3월 9일(주일)

매주일 오후 1시~2시 30분

장소 및 대상 : 50주년기념관 503호실, 전교인

문의 : 상담부 (☎2273-6301 교환 180번)

2003년 북한선교대학 2기 신입생 모집 요강

◆모집인원 및 수료과정

인원: 50명, 수료과정: 1년과정(2학기).

◆응모자격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북한선교 사역을 희망하는 자, 및 북한선교학교수료자 우대함.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이력서(기존양식)1통, 자기소개서(소정양식)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 진(반명함판)2매

◆원서교부, 접수처 및 접수기간

2003년 2월 23일(주일)이후~3월 5일(수)까지

북한선교센터(50주년기념관 806호)

〈심신복 전도사-구내 245번,

선교부 조비아 간사-구내 166번〉

◆교육기간 및 개강일시

1학기: 2003년 3월 18일~6월 17일(14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10시, 주일 오후 3시-5시

2학기 : 2003년 9월 16일~12월16일(14주)

강의시간 1학기과 동일.

개강일시: 2003년 3월 11일(화)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수강료

학기별 등록금: 5만원,

1학기 교재비 : 3만원.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교회 대학장 명의의 졸업증서 수여.
- 본 교회 북한선교사역 자격 부여.
- 총회 단기선교 파송 자격 부여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새벽 5:30 ~ 6:30

주일예배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4부예배	5부예배	저녁(찬양)예배
오전 7:00~8:15	9:30~10:45	11:30~12:45	1:30~2:45	오후 3:00~4:15	5:00~6:15
			젊은이예배 1:00~2:30	국제예배 3:00~4:15	
영아부 1, 2, 3부		오전 9:30~2:00			
유아부 1, 2, 3, 4부		오전 9:30~2:00			
유치부 1, 2, 3, 4부		오전 9:30~2:00			
유.초.소년1부		오전 9:30~11:00			
유.초.소년2부		오전 11:30~1:00			
사랑부		오전 9:30~11:00			
중등1부		오전 9:30~11:00			
중등2부		오전 11:30~1:00			
고등부		오전 8:30~11:00			
대학부		오전 11:00~2: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2:40~4:40			



수요일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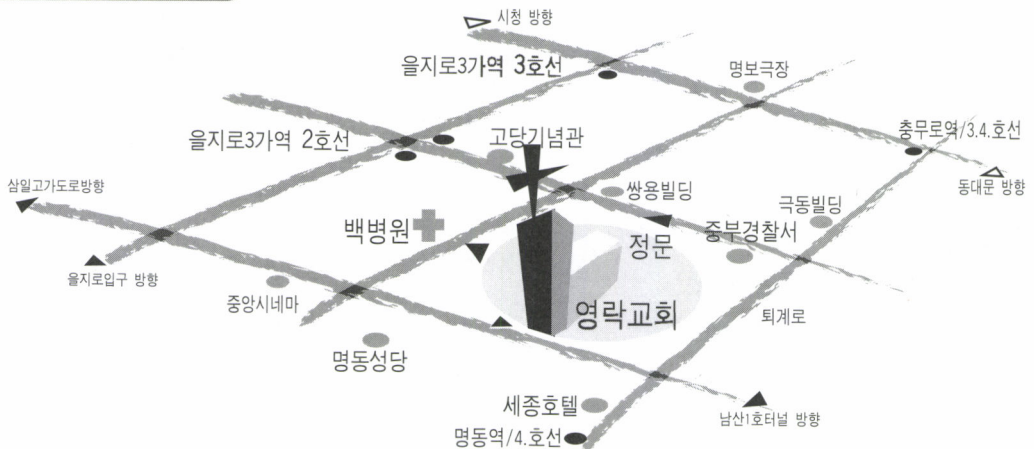
1부 기도회 오전 10:30~11:30

2부 기도회 오후 7:00~8:15

금요일아
기도회

오후 8:00~10:00

교회위치



역사의 순례 (230)



역사적인 '대광'의 첫 번째 입학생들

대광은 1947년 12월 4일 서대문(신문로)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개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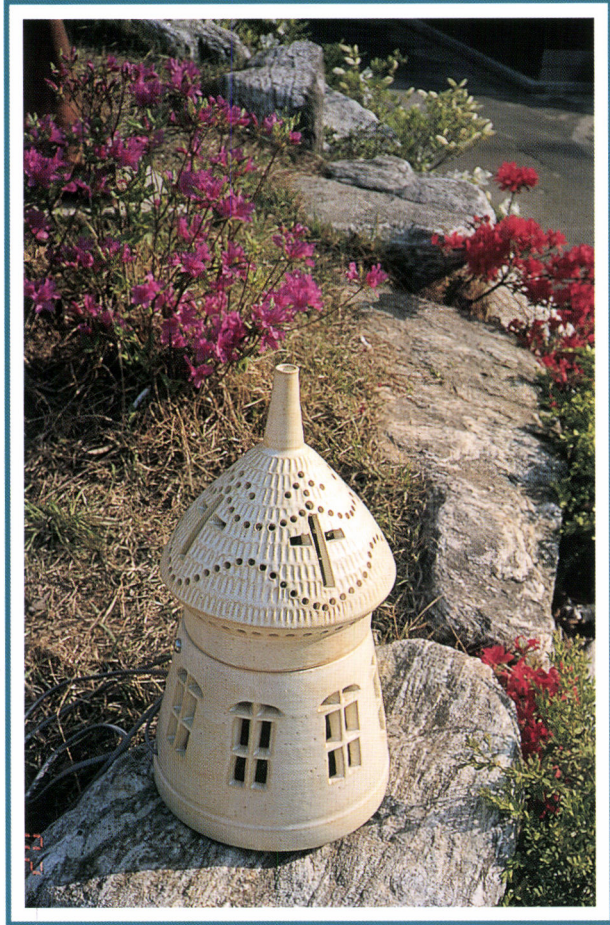
중학교 학제가 6년제로 5학년까지 291명의 신입생을 모집, 피어선 건물에서 개교한 역사적인 대광학원의 현장이다. 1947년 9월 4일 촬영한 이 사진은 피어선 성경학원에 대광중학교 간판을 걸고 태극기 앞에 도열한 것으로 신입생들 교복이 다양한 것이 이채롭다.

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치복, 유영철, 송성찬, ○○○, 이창로, 백영엽, 박동엽, 송형철, 백한규, 장하구, 유응기씨 등 당시 교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초대교장 백영엽 목사를 비롯하여 영락교회 이창로, 박동엽, 장윤철, 송성찬, 차응옥 장로 등은 대광을 처음부터 이끌어 왔으며, 대광학원 발전에 영원한 밑거름이 됐다.

〈사진제공: 송성찬 원로장로/ 대광 50년사에서〉

영락화랑



「생명의 빛」

오미숙 집사 (강서·양천교구)
〈대한민국 공예대전 특선작가〉